

화물용 전기자전거, 저공비행 관광 교통으로 혁신정책 펼치는 세계도시

뉴욕시, 물류에 전기자전거 도입 무공해 자전거로 탄소배출량 줄여

충청시, 프로펠러 항공기 관광상품 항공기 생산, 파일럿 양성 박사



상업용 저공비행 관광에 사용된 프로펠러 항공기. /광장신구관리위원회·서울연구원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저공비행 관광 상품 출시’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혁신적인 교통 정책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물류에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했다. 대형 배송용 트럭이 야기하는 교통 혼잡 및 대기 오염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뉴욕시에서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쇼핑이 활발해지면서 배송 물량이 늘었고 도로에 대형 배송용 트럭이 증가해 보행자 안전 위협, 환경 오염, 이종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2019년 상업용·화물용 전기자전거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022년 뉴욕시에서는 저공해·무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13만건 이상 운행돼 500만개가 넘는 소포를 배송했다”면서 “이를 통해 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5만t 이상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강을 물류 배송에 활용하는 ‘블루 하이웨이 이니셔티브’ ▲중간 배송 공급센터를 도시 곳곳에 설치해 친환경적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마이크로 허브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물류 배송을 지원할 새로운 배달 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화물용 전기자전거라는 신 교통수단 도입은 지속 가능한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국 충칭시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상업용 저공비행 관광상품을 운영해 항공기 생산 활성화와 파일럿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펠러 항공기는 운행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통수단이다. 관광에 사용된 항공기는 시속이 200~300km로, 중국의 고속철도 평균 시속 350km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충칭시 등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에서 프로펠러 항공기를 활용한 저공비행 관광 개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해당 관광 상품이 항공 산업 발전에 도움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연구원은 “충칭시는 군 당국과 협력해 다양한 항로를 개발, 저공비행 관광 상품을 정착시키고, 프로펠러 항공기를 이용한 물류·의료 위생·방재 구호·과학 실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하반기도 ‘동행 서울’... 혜택·지원 늘린다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공개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혜택 늘어 임산부 지원, 키즈카페 확대 운영 등

서울시가 오늘부터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을 시작한다.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을 위한 단기권을 추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7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상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여는 한강 리버버스(가칭)는 10월에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을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 기존 2개 권종에 ▲1일권(5000원) ▲2일권(8000원) ▲3일권(1만원권) ▲5일권(1만5000원) ▲7일권(2만원) 단기권 5종이 추가된다. 할인 혜택도 강화한다. 만 19~39세 청년은 5만5000~5만8000원으로 한 달간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 시는 마곡~잠실 사이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상·하행 편도로 운항하는 한강 리버버스를 선보인다. 편도 요금은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6만8000원)로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또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만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신청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관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포항정보민생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실내 놀이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종전 74곳에서 130개소로 확대·운영한다.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서남권역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자족도시’ 위한 투자유치 총력

바이오 첨단산업 유치 실패에도 오가노이드 분야 추가공모 대응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착공한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기간 야심차게 추진해 온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안타까운 고배를 마셨다.

시는 올해 말 토지공급이 예정된 일산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 다양성 확보와 용지 분양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총 5348억 원에 달하는 43개 기업의 투자의향을 확보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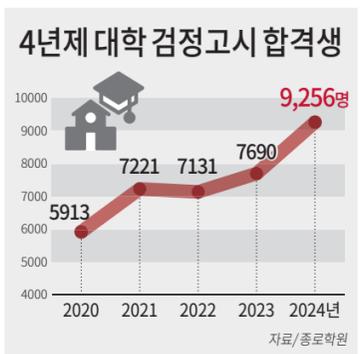
다만,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에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로 선정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가 R&D에 치중해 있고, 국내 생산기반과 산업생태계가 약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오가노이드 분야 추가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준비하고 암·오가노이드 기술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국립암센터 등 관내 6개 대형병원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검토하고 있는 미래차·로봇·방산 등의 분야에도 시의 지정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검정고시로 4년제 대학 입학 12년새 최다

합격생 9256명... 전년비 20% 증가 SKY 합격생도 189명 ‘역대 최대치’



올해 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 수가 1만 명에 육박하며 공식 이래 최다치를 경신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 비중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만족스럽지 못한 내신 점수를 검정고시를 통해 만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종로학원이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22개 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 수’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검정고시 합격생은 9256명으로 집

계됐다. 이는 대학알리미에서 2013년 검정고시 합격생을 공시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23학년도(7690명)과 견줘도 1년 새 20.4%인 1566명이 증가했다.

5년 전인 2019학년도 4521명이던 검정고시 합격생 수보다 2.1배가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2020년 5913명 ▲2021년 7221명 ▲2022년 7131명 ▲2023년 7690명 ▲2024년 9256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검정고시 합격생도 18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역시 82명이던 5년 전(2019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검정고시 합격생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주로 정시모집과, 수시 논술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지방권 대학에서는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 집중된 것으로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lhj@

교육사다리 ‘서울런’ 소득기준 60%로 완화

수강가능 대상자 약 2만명 확대

이번달부터 약 2만명의 서울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서울런’ 강의를 추가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런은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344만원 이하하면 서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1일 (월) 음력 : 5월 26일

수도권 날씨 22~3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0/31, 동두천 20/30, 가평 19/32, 파주 20/30, 서울 22/30, 양평 21/30, 인천 22/27, 수원 22/30, 용인 22/30, 평택 21/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란 대선, 개혁파 후보 1위 ‘이번’... 다음달 5일 결선투표
▲“韓, 사도광산 조선인 위령시설 등 요구...일본, 보수파 탓에 고심” /사진 뉴시스

▲하마스 “휴전 협상 진전 없어”...美 제시한 수정안 사실상 거부
▲中 관광객 ‘홍콩·마카오’ 면세한도 최대 3배로



▲미 대선 첫 TV 토론...바이든 ‘폭망’에 후보 교체론 급부상
▲프랑스 총선 시작...극우, 역사상 첫 승리 예상 /사진 뉴시스